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8. 1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러시아, 「나발니」 설립 단체 '극단주의 조직' 판결

- 8.5 러시아 항소법원은 야권 운동가인 「나발니」가 조직해 운영해온 △반부패재단, △시민권리보호재단, △나발니 본부 등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인정한 1심 판결 유지한다고 결정

* 「푸틴」 대통령의 정적으로 지목받는 「나발니」는 '20.8월 독극물 테러를 당해 독일에서 치료 후 '21.1월 러시아로 귀국했다가 체포되어 3년 6월 징역형을 받고 복역中

○ 러·타지크·우즈베크, 아프가니스탄 접경에서 연합훈련 실시

- 8.5 러시아는 美軍과 NATO(북대서양조약기구) 동맹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탈레반의 공세로 현지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며, 해당국 접경국인 타지키스탄·우즈베키스탄과 연합훈련을 실시

* 이번 훈련은 병력 2,500명·장비 500대를 동원, 아프간 북부지역의 무장단체를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8.10까지 진행

미주

○ 美·英, 아프가니스탄 테러정세 악화로 자국민 출국 권고

- 8.7 미국과 영국 정부는 탈레반의 △국방장관 공관 겨냥 자폭테러(8.3), △아프간 정부 미디어 정보센터장 암살(8.6), △쿤두즈주 주도 장악(8.6) 등으로 아프가니스탄 테러정세가 악화되자 현지 체류 자국민 출국을 권고

* NYT는 매주 3만명 이상의 아프간인이 국경을 넘어 탈출하고 있다고 보도

○ 「바이든」, 중오범죄 차단을 위한 아시아계 협력 당부

- 8.6 「바이든」 美 대통령은 아시아·태평양계 활동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중오범죄·괴롭힘·편견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출신들의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적극 협력 당부

* 한국계 「성연 최모로우」 미국아시아태평양여성포럼(NAFAWF) 전무 포함 10여명 참석

○ 美 법무부, 9.11 테러 관련 기밀정보 해제 검토

- 8.9 美 법무부는 9.11 테러 20주기를 앞둔 가운데 “9.11 테러범들과 잠재적 공범자 관련 수사를 최근 종결했다”고 밝히며 9.11 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요구해온 기밀문서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

* 최근 9.11 테러 희생자 유족측은 “9.11 테러에 사우디 정부가 연루되었음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법무부·FBI가 비밀로 하고 있다”며 공개를 촉구

아 · 태평양

○ 中, 美의 신장 제재 법안을 ‘테러 세력을 부추기려는 의도’로 비판

- 8.6 中 공안부는 7.14 美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‘위구르족 강제 노동 방지법안’에 대해 ‘東투르키스탄 테러 세력을 부추겨 신장지역에서 분열과 소요를 선동하려는 것’이라고 주장

* 신장지역 생산품이 美國 통관시 강제노동으로 제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토록 규정

○ 인도, 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‘자마트-에-이슬라미(JeI)’ 급습

- 8.8 인도 국립수사국(NIA)은 잠무카슈미르에서 종교단체 ‘자마트-에-이슬라미(JeI)’ 관련 지역 50여 곳을 급습, 이들이 자선·복지 활동 명목으로 수집한 기부금이 ‘라쉬카르-에-타이바(LeT)’ 등 테러단체에 지원되고 있다고 발표

○ 탈레반, 아프가니스탄 9개州 州都 점령

- 8.10~8.11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북부 바다크산州·바글란州, 서부 파라州 등 현재까지 총 9개의 州都를 점령하고, 정부군이 후퇴한 현장 사진 및 동영상과 탈레반에 우호적인 주민 인터뷰를 SNS로 홍보

이라크 바그다드주 대형 재래시장 트럭 자살폭탄 테러

- '15.8.13. 06시경 이라크 바그다드주의 시아파 밀집 거주지 사드르市 (Sadr City) 소재 '자밀라 시장'(Jameela Market)에서 트럭 이용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, 최소 76명 사망·200명 부상
- 짐칸에 폭탄을 滿載한 냉동트럭이 사드르市의 대형 재래시장 '자밀라' 안쪽에서 폭발하면서 큰 인명피해를 초래
 - * 사드르市는 '14.1월부터 사실상 ISIS가 통제하던 상황
- ISIS는 테러 발생 5시간 만에 인터넷을 통해 同테러의 배후를 자처하며, 軍과 시아파 민병대를 겨냥해 공격했다고 주장
- 이에, 경찰은 'ISIS의 주장과 달리 사상자 대부분이 상인 내지 장에 나선 민간인으로 확인되었다'며 '테러에 동원된 냉동트럭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종으로 사전 적발이 어려웠다'고 토로
- 한편, 언론은 사건 원인에 대해 이라크 시아파 정권이 부패청산을 명분으로 대대적 사정·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자 ISIS가 이를 수니파 탄압으로 몰아 종파간 대결 구도로 악용한 전략으로 분석

테러 상식

< ISIS(이라크·시리아 이슬람국가) >

- (목 표) 시리아·이라크 등 중동 전역을 통괄하는 원리주의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 ('04. 4월 결성)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4.10월), 미국('04.12월), 캐나다('12.8월)
- (조직규모) 약 14,000~18,000명 추정('19.8월, 美 국방부) * 전성기 최대 약 7만명
- (연계세력) ISIS-호라산·西아프리카·시나이 지부 등 20여개
- (활동지역) 이라크 서북부 및 시리아 동부 지역
- (활동수법) '19.3월 시리아내 점령지 상실 이후, 게릴라식 테러를 지속 중인 가운데 선전매체 등을 통해 테러 선동
- (주요테러) ① '15.11월 프랑스 파리 공연장·축구장 등 동시다발테러(사망 130, 부상 350)
 ② '17.12월 이집트 수피교 사원 폭탄·총격테러(사망 305, 부상 128)
 ③ '19.4월 스리랑카에서 ISIS 추종단체의 연쇄테러(사망 259, 부상 500)